

여름철 농축산분야 재해 발생 차단 총력

전북도, 축산농가·벼 잎도열병 현장 방문... 가축재해보험 가입·집중방제로 피해 차단 당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9일 여름철 농축산분야 재해 대비 축산농가와 벼 잎도열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장과 도의회 김정기 의원, 도 기술원, 부안군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먼저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부안군 계화면에 소재하는 오리사육 농가를 방문해 농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도내 7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였으며, 무더위가 지속되는 8월 중순까지는 가축 폐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9월까지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군과 함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지도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을 개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장과 도의회 김정기 의원, 도 기술원, 부안군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9일 여름철 농축산분야 재해 대비 축산농가와 벼 잎도열병 현장을 방문했다.

선할 수 있는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등 시설·장비와 폭염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폭염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벼 재배 현장으로 이동해 지난 해 이래적인 피해를 가져온 벼 도열병 발생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9일 잎도열병 첫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지난해첫발생

(7.9일경)보다 10일 정도 늦었고, 병 발생정도가 낮은 편으로 작기방제만 이루어진다면 대발생 확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삭도열병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전북도는 작년 이삭도열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도 기술원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기간 운영 등 출수기 전·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는 공동방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법인에 광역방제기, 농업용 방제드론, 무인헬기를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경영체는 직접 공동방제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장마가 끝나고 며칠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농가나 행정 모두 재해 대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라며 "행정에서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농업 재해 대책 지원 등을 통해 재해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 새일센터, 29일~9월 16일 이메일 접수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초기)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 맞는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 멘토링, 인큐베이팅(창업보육 및 설립준비)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전북도내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여성으로 개인 및 팀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시원은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jwomens@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 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창업캠프, 3차 경진대회 당일 발표대회 순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여팀을 대상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하는 창업캠프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과 창업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선 대회에서는 예비창업자 5팀, 기창업자 5팀을 선발하여, 각각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상 50만원(2팀), 장려상 25만원(2팀)을 사업화 자금으로 총 5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특히 기창업자 우수상 2팀에게는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전북



여성벤처기업협회의 벤처상으로 지원이 된다. 대회 이후에는 지속적인 창업 멘토링 및 창업 마케팅, 보육실 등 창업 공간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올해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여성들의 섬세한 감성이 발휘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가 배출되어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도내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상담사 배치와 여성창업 아카데미,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창업캠프를 비롯하여 예비창업자 동아리·공동체 창업 지원을 위한 프리마켓,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3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 063-254-3714 또는 홈페이지(www.jwcre.kr)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전북경찰, 중대재해법 수사 조만간 마무리... 관리자 등 9명 입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4건 수사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은 현대차 전주공장 기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41)씨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승진 사고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었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kg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캡을 크레인에 고정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부족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8일에 발생한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C(67)씨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 등 3명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업무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3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한 진안군 안전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t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승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승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뉴시스

전북도 특사경, 성수기 노린 불법업소 33개소 적발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를(공중위생업소 16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 적

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

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실제 이곳 일대에는 숙박업소 신고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 총 12곳이 단속됐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특사경은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곳들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과 낚시객을 노린 불법 휴게음식점 등이 늘어서 있었다.

이에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제7기 농업마이스터대학 4학기 개강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9일부터 제7기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4학기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중장년 품목 재배기술을 보유한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2년) 교육과정이다.

현재 분원을 비롯해 전북대캠퍼스, 한국농수산대학캠퍼스에 교육생 254명이 등록했다. 교육품목은 수도작,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고추, 멜론·수박, 한우, 양계, 양돈, 복숭아, 인삼, 친환경채소, 약용작물, 사과 등 모두 14

개다. 제7기 4학기 교육은 9일 딸기·블루베리를 시작으로 수도작·멜론(수박)(10일), 토마토(16일), 고추(17일) 과정이 진행된다. 전북대캠퍼스와 한국농수산대학캠퍼스의 각각 4개 과정도 8월 중순에 개강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부터 시작된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개교 이래 1,469명의 전문농업인을 배출했다. 또한 재배기술 지식,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 장인(匠人)이라 할 수 있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에 25명 합격생을 배출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